제 7강 사람들 사이에 서다(人間世) II : 자기 보존

◆ 1교시 세상을 사는 지혜

▲ 장자의 인간세편- 좌망(坐忘)

인간세편 첫 번째 이야기 중에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안회가 위나라로 떠나려고 하니까 공자가 말리며 예를 들어, 광용봉은 걸왕을 간하다가 죽었고, 비간은 주왕을 간하다가 죽었다. 광용봉과 비간은 훌륭한 현인들이었는데 임금은 도리어 그들이 수양을 잘했다는 빌미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말하니 그리고 제가 안회의 양을 제가 생략을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쉽게 이루어지겠는가? 물으니 공자가 얘기를 합니다. 보시죠. 이 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니가 말했다. 중니가 공자죠. **우선 제계하도록 하라.** 내 너에게 말해주겠다. 사심을 품은 채로 재계를 하면 쉽게 이루어지겠는가? 쉽다고 여기는 자는 하늘을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네. 표현이 난해합니다만 즉. 제계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집안이 가난해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고 훈채를 먹지 못한지 몇 달이 되었으니 이 정도면 제계했다고 할만 하지 않습니까? 원래 제는 齊라고 하죠. 齊라는 것이 가지런할 제 자인데… 이 齊가 사물을 가지런하게 정돈한 것이라고 했죠. 그 대상이 마음이 되면 이게 小로 보이지만 心에요. 이렇게 길게 쓴 것이 心라고, 심방변이라고 하죠. 마음을 제기하는 것이요 齊입니다. 보통 제계라고 하면은 不飮酒 不茹葷. 葷은 향신료인데 어쨌든 酒나 葷은 냄새가 나니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이 제계의 기본입니다. 안회의 얘기는 저는 집안이 가난해서 어차피 酒나 葷 없기에 평소에 제계가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안회가 가난하다는 얘기가 논어에도 여러 차례가 나오는데 장자에도 여러 차례 나와 있고 안회의 살림살이까지 다 아는 가까운 관계인거 같아요.

중니가 말했다. 그것은 제사지낼 때 제계이지 그것은 내가 말하는 제계의 심재가 아니다. **심재는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는 것.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는 것은 즉 무심. 마음을 없애 버리는 것…** 안회가 말했다. 감히 마음을 제계를 무엇인지 묻습니다. 공자가 말하길 그것 너는 뜻을 한결같이 해야 한다. 一志. **사물의 소리를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으며 또 마음으로 들지 말고 귀로 들어야한다.** 귀는 감각기관이라 부정확하다. 또 마음도 부족하다. 귀는 감각적인 소리만 듣고 마음은 지각에서 멈추지만. 감각과 지각의 차이가 있죠. 지각은 통찰력이 있는 것. **마음은 통찰력을 가진 지각에서 멈추지만, 귀는 마음을 비워서 사물을 기다리는 것이다.** 虛를 쓰죠. 도는 오직 마음을 비우는 곳에 마음을 제기하는 것이다. 마음을 제기하는 것은 마음을 없애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원문편에 보면 말이죠. 氣也者. 虛而待物者也. 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설명문 형식입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비운채로 待物.

www.artnstudy.com

다른 사물을 기다리는 것이다. 차 있으면 오지 않는 것, 비워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안회가 제계를 합니다. 안회가 말했다. 제가 아직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는 참으로 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을 듣자마자 제 자신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 정도를 마음을 비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하길 그럼 급진하게 제계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보면 坐馳와 坐忘이 나오죠. 이 문단의 끝부분에 것이 좌치입니다. 좌치는 몸은 가만히 앉아있지만 정신이 여기저기 치닫는 거. 끝이 없는 욕망의 시달림의 상태. 좌치와 반대되는 말이 坐忘인데. **坐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인데 좌치는 몸은 앉아 있지만 마음을 말이 달리는 것처럼 여기저기 치닫는 것입니다.** 좌치는 이제 인간세편에는 안 나오고 대종사편에 나옵니다. 대종사편에 나오는 좌망이라고 하는 경지를 안회가 얘기를 해요. 안회가 좌망했습니다는 말을 듣고 공자가 말하길.. 이젠부터 내가 너를 배워야겠다고 말합니다. 그 순서를 정리 해 놓은 것이 좌치 좌망 밑에 보면 나와 있죠. 妄仁義. 일단 인의를 잃어버리는 것. 공자의 제자인 안회가 인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하길.. 훌륭하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忘禮樂 선생님 예악을 잃어 버렸습니다 라고 안회가 말했지만. 공자가 또 훌륭하지만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어느 날 안회가 공자에게 저는 좌망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공자가 깜짝 놀라면서 좌망이 무엇이냐? 묻자 안회가 말하길.. 墮肢體. 肢體는 팔 다리 사지 몸을 던져버리고… 몸을 던져버렸다는 얘기는, 감각을 던져 버렸다는 얘기구요. 黜聰明. 지각을 쫓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외부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로를 쫓아버렸다는 얘기. 총은 귀가 밝은 거고 명은 눈이 밝은 것인데 몸을 추방하고 총명한 눈과 귀를 쫓아내버리고. 墮肢體와 黜聰明을 한꺼번에 표현하면 離形去知입니다. 離形은 몸을 떠나는 것이니 지체를 던져버리는 것이고 감각으로 총명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니 黜聰明입니다그렇게해서 同於大通은 大通와 같아지니 此謂坐忘 이것을 일러 좌망이라고 합니다. **감각과 지각을 모두 던져 버리는 것 이것이 좌망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죠.

▲ 장자의 세상을 사는 지혜 - 허실상백(虛室生白)

공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회가 자신이 사라졌다고 하니 극진하다고 얘기하죠. 공자가 안회에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방법을 얘기해줍니다. 특이하게 夫子 曰이라고되어 있어요. 夫子 曰은 공구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을 높여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夫子는 공자입니다. 眞矣하다. 그 정도는 극진하다. 吾語若. 내가 너에게 일러주겠다. 若은 이인칭입니다. 너는 가서 이렇게 해라. 若能入遊其樊. 그 울타리 속에 들어가서 놀고, 而无感其名. 그리고 군왕들이 노는 곳에 들어가서 놀기는 하되 명예에 感 느끼지 말고, 명예에 마음이 흔들지 말고, 入則鳴 네가 말하는 말이 상대가 수용을 하면 鳴 말을 하고, 그리고 不入則止,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지하고, 无門无毒. 門은 문을 열어서 맞이하는 것이고.. 毒도 壔자로 읽습니다. 毒은 막아버리는 것, 억지로 상대를 깨우쳐주려고 상대

www.artnstudy.com

로 물어보는데 억지로 거부하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문제죠. 예를 들어서 往者不可諫 來者猶可追.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가는 사람을 쫓아가지 않고 오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항상 문제는 가르쳐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쫓아가서 가르치려는 태도. 인터넷 댓글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나의 글을 가르치지 마시오 댓글 붙이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또 남이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해주는 경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요. 다 읽기는 힘들겠네요.
一宅而寓於不得已. 於不得已는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것 부득이한 상태에서 비로소 움직이는 것. 則幾矣. 삶을 보존하는 데 가까울 것이다.** 원래 권력과 상관없는 자리는 계속해서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마지못해 해야 하는데..그것을 억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제가 활동하는 쪽이… 학회 쪽이니 장관이니 선출직 공무원은 이런 권력이 직접 달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무슨 학회의 회장은 권력의 자리는 아니기에 투표해서 선출하지 않고 다들 하기 싫어서 당신이 그냥 하시오 할 수 없이 하는 자리인데, 요즘은 분위기가 이상해서 투표해서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거 보면 좀 이상하다 싶기는 합니다. 그런 자리는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건데 어째 좀 이상해요. 무슨 권력을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전통적인 지식인도 그렇고요. 권력과 결탁하는 지식인은 일단 그 권력이 아무리 친화력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건데. 아무래도 요즘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 꼭 장자가 아니라도 어쨌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고 하는 얘기가 절묘한데.

絶迹易,无行地難. 絶迹.자취를 끊어버리는 것은 絶迹易. 세상에서 자취를 감취기는 쉬워도 无行地難.**세상을 살면서 땅을 걸어가지 않는 것,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 爲人使易以僞. **사람에게 부림을 당할 때는 속이기 쉽지만 爲天使難以僞. 하늘의 부림을 받으면 속이기 어렵다**. 爲人使易以僞의 人은 다른 사람이구요. 爲天使難以僞의 天은 자기 자신입니다. 순자가 마음을 천군이라고 했거든요. 聞以有翼飛者矣. **날개 달고 날았다는 말은 들었어도 未聞以无翼飛者也. 날개 없이 날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네. 근데 날개 없이 날수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聞以有知知者矣. 지식으로 사물 이치를 안다는 말은 들었어도 未聞以无知知者也. 무지로 모든 것을 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지식을 무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현요..瞻彼闋者. 瞻은 봐라는 뜻. 闋은 문 닫힌 것. 저문 닫힌 집을 봐라. 虛室生白. 빈방에 햇살에 비친다. 吉祥止止. 길상이 거기에 와서 머문다. 멈추어 있는 곳에 와서 멈춘다. 夫且不止. 멈추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앉아있으면서도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으로 치닫는다. 虛室生白이 포인트인데요. **빈방에 햇살에 비친다.** 虛室은 빈방이죠. 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내면을 의미한다. 生白.. 白은 하얀 아침 햇살의 의미이구요.. 生氣.. 비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안 비추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인데, 미국화가 중에 에드워드가 있죠. 얼마 전에 『빈방의 빛』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한길아트 거기에서 빈방의 빛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마크스트랜드라는 시인이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해설 한 그런 내용인데 거기 보면 타이틀이 빈방의 빛이에요. 빈방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런데 빈방인데 햇살만 비추는 것에요. 예를 들면, 창문이 있고

www.artnstudy.com

요. 창문을 해서 들어오는데 여기에 벽이 있습니다. 창문에 햇살이 비추고 여기에 이렇게 햇살이 비추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햇살이 여기 한번 비추고 여기에 한번 비추고 빈방의 햇살의 아름다움을 정말 절묘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침 햇살의 아름다움을 저는 이 그림 통해 느꼈는데 이 그름을 본 순간 虛室生白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꽉 차 있으며 일단 시선을 빼앗아 버리겠죠. 물론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안에 아무거도 없으니깐 텅 빈 곳에 비치는 햇살을 보게 되는데 그 시선이 거기 가서 머무는 거죠. **虛室生白이라는 말도 텅 비어있는 마음속에 생기가 자라난다. 도란 바로 그런 것이다. 장자의 표현으로는 허실이라는 상태가 좌망이고 그 반대가 좌치가 되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을 여기저기 마구 다니는 것이다. 그런 태도를 버리고 좌망, 허실 마음을 비우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야 자신을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것은 마무리 얘기인데 굳이 읽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 2교시 자기 보존의 우화들

▲ 섭공과 중니의 문답 - 넘치는 말은 재앙을 부른다

4페이지로 넘어 가서 두 번째 이야기로 섭공이 공자를 방문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섭공이 다른 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어 있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말하길 욕심 부리지 말고 임금이 시킨 그대로 전하기만 해라 그게 자신을 보존하는 방법이다.** 간단히 한번 볼까요? 공자의 얘기입니다. 내가 청컨대 凡交近則必相靡以信. 내가 들은 바를 내가 들은 것을 당신에게 일러주겠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는 거리가 신의를 맺고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交遠則必忠之以言. 거리가 멀며 이것이 문제입니다. 반드시 진실한 말로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섭공은 초나라사람인데 제나라로 사신 가는데 이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말로 진실한 관계로 맺어야한다. 근데 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전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왜곡이 되죠. 말은 한사람만 거쳐도 잘못 전달되잖아요. 두 나라의 군자가 다 같이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것은 천하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두 나라의 군주를 모두 기쁘게 하려는 경우는 반드시 칭찬하는 말을 넘치게 하길 마련이고 오버하는 거죠. 두 나라 군주를 모두 성내게 하려는 경우는 비난하는 말을 넘치게 하길 마련이다. 넘치게 하는 행위는 거짓이니 거짓을 말하면 군주가 믿어주는 마음이 막연하고 믿을 수 없게 된다. 이거죠. 믿음이 막연해지면 말을 전하는 사람이 화를 당한다. 그 때문에 격언에 말하기를 떳떳한 진실을 전하고. 넘치는 말은 전하지 않으면 언제나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공자가 말을 합니다. 나서서 공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전달 받은 내용을 그대로 상대에게 전하기만 해라

www.artnstudy.com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 안합과 거백옥의 문답 -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 것

세 번째 이야기가 또 안합과 거백옥입니다. 안합이 아까 말씀드린 괴외의 스승이 된 것이에요. 괴외는 자기 어머니까지도 서슴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그런 포악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의 스승 역할을 할 때 거백옥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거백옥이 그런 곳에서 살아남기는 螳螂 사마귀 車轍 수레바퀴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當, 맞서다. 줄여서 螳螂車轍라고 하구요. 螳螂이 수레바퀴와 맞서는데 왜 맞서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의 재주가 뛰어나기에 나선다고 거백옥이 말했다. 수레는 사마귀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뛰어나다고 재주가 없는 사람은 아예 나서지를 않는데 바로 그 재주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희생당한다는 것은 거백옥의 좋은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번역된 문장 중심으로 보죠. 그대도 螳螂車轍의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사마귀는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맞서 자신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지 못하니 그 이유는 자신의 재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뛰어나기도 하구요. 경계하고 삼가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여 자신의 남을 업신여기는 자는 위태롭다.** 그대는 범을 사육하는 사람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감히 산 채로 음식을, 여기서 생물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합니다. 장자에 생물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범을 키울 때 범에게 살아있는 동물을 그대로 음식으로 주지 않는다. 그대로 주지 않는 것은 범을 산 짐승을 죽이고자 하는 성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럼 사람을 죽인다. 범은 폭군을 상징하는데요. 또 감히 죽은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한 마리를 통째로 주지 않는 것은 범이 먹이를 찢어발기려는 성냄을 일으킬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범을 배고픔과 배부른 시기를 꼭 맞추어 음식을 주어서 성내는 마음이 다른 발산되게 하면 범과 사람은 종류를 달리하지만 그렇지만 **범은 자신을 사육하는 사람을 잘 따르게 됩니다. 그 까닭은 사육하는 사람이 범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간혹 범이 자신을 사육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육하는 사람이 범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거슬리는 때문이다.**

그리고 말을 사육하는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은 네모한 대 광주리에 말똥을 담고 커다란 조개껍질에 오줌을 담지만 어쩌다 말의 등에 모기나 등에가 달라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채찍을 내리치면 놀란 말은 재갈을 물어 끊고 머리를 여기저기 부딪치고 가슴을 치고받고 박살내니 이처럼 뜻이 **한 가지 목적에 사로잡히면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리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임금을 사랑한다고 해서 죽는다. 그런 경우 역사 속에 많죠. 뛰어난 문인들 중에서도 임금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애국충군지심. 나라를 사랑하고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마음을 갖고 죽습니다. 마치 말을 사육하는 사람이 말 등에 있는 모기를 잡아주어야 하듯이 그것을 잡으려고 내리치다가 결국 말은 갑자기 때리니 놀라서 사람을 죽일 경우가 있죠말을 사랑하려면 말의 본성에 맞게 말을 사랑해야 하는데 지 생각에 빠져 그렇다가 죽

www.artnstudy.com

는다. 많죠. 그 이젠 소 같은 거 키우고 할 때 소가 무서우니깐 소 뒤로 가면서 만지려고 하잖아요. 소가 안 보이는 쪽으로 가면 소가 자꾸 불안해하죠. 저도 어릴 때 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풀도 뜨고 머 이렇게 했는데 소는 뿔 있는 쪽으로 가면 안심해요. 자꾸 자기가 든든하게 방어할 수 있는 쪽이나 자기가 잘 보고 있는 쪽으로 오면 전혀 소가 불안해하지 않아 쓰다듬어도 되고 무엇이든 다 되는데, 뿔이 무서워서 자꾸 뒤로 가면 소도 자꾸 불안해서 발길질하게 되고 소가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것도 소의 사랑하는 방법을 소에 맞추어 해야 되겠죠 이건 상대가 범이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범인데 거기에 맞추어 사랑을 하면 범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겠죠. 그러면 폭군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겠죠. 그럼 이젠 폭군 아닌가요? 장자에게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근데 어쨌든 자기는 국가를 사랑하고 군주에 충성을 하려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다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나?

▲ 장석과 역사의 문답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네 번째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잡인은 아마도 이게 욕이거든요 잡놈이라는 뜻입니다. 장석이라는 사람이 뛰어난 목수에요. 그리고 이젠 여기서는 장석이 제나라 見櫟社樹. 사당에 심어진 상수리나무를 보게 되었다. 상수리나무를 심어서 보호하는 셈인데 원문을 보시죠.
匠石之齊, 장석이 제나라로 가다가 至於曲轅, 곡원에 이르러見櫟社樹. 사당에 심어진 상수리 나무를 보게 되었다. 其大蔽數千牛, 나무의 크기는 소를 가릴 정도로 컸는데, 絜之百圍. 그 둘레를 재어 보니 백 아름이나 되었다. 其高臨山, 높이는 산을 내려다 볼 정도로 커서臨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 상수리나무가 산보다 더 높아요. 그 그늘에 수천마리의 소가 있고 이건 과장이 크죠. 이 얘기가 고려 시대 문장가인 이규보가 변산에 있는 소나무 숲이 수천마리의 수를 가리만큼 무상하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그 높이가 산을 내려다 볼 정도로 크고, 十仞而後 열길이 지난 뒤에 有枝 비로소 가지가 생기고, 사람의 키를 180센티를 10배하면 18미터인가요? 18미터부터 가지게 있는 것입니다. 其可以爲舟者旁 그 나무를 자라서 배를 수십 척이나 만들 수 있을 정도였다. 황당하게 크죠. 장석의 제자가 실컷 구경하고 자기 스승을 쫓아가요. 선생님, 선생님을 쫓아다닌 이후로 아직까지 이처럼 큰 재목을 본적이 없는데 선생님은 어째 돌아보지도 거들떠 보지고 않고 가십니까? 그 다음 문단 번역을 보시죠. 장석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만두어라. 그 나무에 대해 말하지 말아라 쓸모없는 散木이다. 雜木. 쓸 데가 없으니까 산목이다 라고 합니다. 나중에 력사수가 장석 꿈에 나와서 너야 말로 산인이다. 잡놈이다. 역사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散人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에 한원진 인물성동이론의 대표적인 유학자입니다. 당대의 대표가 되는 사람인데 장자 주석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호칭을 남당 산인이라고 했어요 한남당이라고 나 잡인이다. 나 잡놈이라고 호칭해요. 마침 잡놈이라고 스

www.artnstudy.com

스로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건 장자에서 빌려와 호칭을 단 것이죠 어떤 분은 스스로 "나는 잡놈으로 살란다." 라는 분도 있고요. 잡인으로 뜻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특정한 용도 때문에 희생 되지 않겠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받쳐서 또 희생할 만한 거 보다 또 다른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뭐 국가가 최고의 가치인가? 아닐 수 있거든요.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 머 그런 것이 있었죠. 요즘 설마 안 하겠죠. 어쨌든 태극기 앞에 해야 하는지, 나는 아내와 자식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도 되는 게 이 사회인데 태극기 앞에 바치고 예를 들면 일본에서 일장기를 머라고 합니까? 일장기 앞에 바치는 선서를 거부하죠. 일본 교사들이 거부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죠.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 하면 말이 됩니까, 안됩니까? 우리는 이건 예인데 국가가 최고의 가치인가? 그럼 민족이 국가보다 민족이 더 높은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가? 그것을 넘어선 또 다른 가치가 없는가? 장자가 보기에 또 다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은 삶의 올바른 지키는 도리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머 예를 들어서, 윤봉길 같은 경우에 상해 거기서 일본군사령관에게 폭파시키잖아요. 멋있죠. 그때에 쓴 글 보니깐 23세로 의결로 하고 죽었더라고요. 그것을 민족적인 자긍심을 주고 중국인들에게도 엄청난 반항을 일으키고 저도 거기 상해 가서 다 보고 나왔는데 거기 어떤 중국양반이 피티병에 물을 가득 채워 끝에 스펀지 내어가지고 물로 바닥에 붓글씨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말라 버리지만 제가 그것을 달라고 해서 몇 글자 썼습니다. 윤봉길 의거를 두 번째 대한 기상 위진 천하다, 대한의 기상이 천하를 진동시켰다고 폼나게 썼더니 그랬더니 옆에 있는 중국인이 중국이 세계 제일이라고 쓰더라구요. 제가 먼저 띄운 거에 보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선점했기에 그냥 웃기는 이야기구요. 그게 멋있긴 한데 그게 최고의 가치인가? 그게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정말 목숨을 다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쓸모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 주제를 다시 돌려서 장석과 상수리나무 얘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쓸모없다. 이렇게 하고 나서 세 번째 문단에 장석이 집으로 돌아와서 상수리나무가 꿈속에 나타나 말했다. 자네는 도대체 나를 어디에 견주려 하는가? 장석이 쓸모없는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대는 나를 문목에 비하려나? 문목은 재목으로 쓰이는 나무입니다. 아가위나무 배나무 이런 나무는 열매가 있기에 훌륭한 나무로 취급하는 거죠. 귤나무 유자나무 이런 것들은 과실이 익으면 결국 사람들에게 잡아 뜯기고 욕을 당하게 되지 큰가지는 꺾이고 작은 가지는 끌어 당겨지네, 이는 잘난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괴로움을 받는 것일세, 따라서 주어진 천수를 누리지 못한 채 도중에 요절해서 스스로 세속에서 스스로 해침을 자초하는 게지 모든 사물이 이와 같지 않음이 없다. 또한 나는 쓸모없기를 구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거의 죽을 뻔했다가 아까 낮에 제자가 유심히 보아서 드디어 이제 짤리는가 이렇게 두려워 한거죠. 죽을 뻔 했다가 비로소 지금 그것을 얻었다. 장석이 훌륭한 목수인데 쓸모없다고

www.artnstudy.com

하면 정말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쓸모없다고 하면 그것이 나의 큰 쓸모이다. 이처럼 큰 나무가 될 수 없었을 걸세. **그런데 자네는 나와 똑같은 사물인데 어째서 나를 대상화시킬 수 있는가? 그대도 곧 죽을 가치 없는 존재이니 어찌 쓸모없는 나무를 알아보겠는가!!** 력사수의 반격입니다.

▲ 남백자기와 큰 나무

그 다음의 다섯 번째 이야기는 또 나오는 데요 앞의 얘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태도가 다를 뿐 남백자기가 상구 지방에 갔다가 큰 나무를 보았는데 보통 나무와는 사뭇 달랐다. 그 나무는 말 네 필 씩 끄는 수레 천대를 그 그늘을 덮어 가려질 정도였다. 남백자기가 무슨 나무인가? 필시 이 나무는 좋은 재목일게야, 그리고 보았는데 가지를 살펴보니 구부러져서 대들보를 쓸 수없고 아래로 커다란 뿌리를 살펴보았더니 속이 갈라져서 관으로 사용할 수도 없었다. 잎사귀를 핥아 보니 입 안이 헐어 상처가 나고 냄새를 맡으면 사람을 취하게 해 사흘이 지나도 깨어나지 못했다. 남백자기가 이렇게 말했다. 이 나무는 과연 쓸모없는 나무라서 그 때문에 이처럼 커다랗게 자란 게야. 아 신인(최고의 인격자)들도 이 나무 같이 쓸모없는 까닭에 성인 된 게로구나 쓸모없는 삶이 오히려 대용이 된다고 남백자기가 이야기 하고 있고요.

▲ 지리소의 행복 이야기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리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형인입니다. 장자의 덕충편에 보면 이젠 어떤 사람의 내면의 덕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호에요. 어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통해 드러나는가? 부호는 지리소는 배꼽이 이마에 붙어 있는 사람. 어깨가 머리보다 더 높은 사람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사람. 인기지리무소는 발이 없는 사람 언청이 혹이 있는데 목에 항아리만한 혹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덕이 충현이라는 표현입니다. 지리소와 관련된 얘기는 덕충편에서 같이 다루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남백자기 이야기를 끝으로 인간세편 인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는 것이 현명한가? 그런 이야기 한 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www.artnstudy.com